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2

2013 <http://www.ucac.or.kr>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이하며 ...



희망찬 계사년(癸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임진년 한 해는

울산광역시 승격 15주년과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대형 뮤지컬과 연극,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한국미술 100년 특별전,
시립교향악단의 '북미 순회 연주', 시립합창단의 창작 '울산의 노래',
시립무용단의 울산의 세계적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A.D. 암각화',
시립예술단의 창작뮤지컬 '태화강' 여수세계박람회 공연 등
시민 여러분의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18주년이 되는 해로
국내·외 우수 공연과 예술작품 전시, 시립예술단이 준비한 풍성한 공연으로
시민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며, 회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향악 축제 참가, 시립무용단의 해외공연,
뮤지컬 '태화강'의 서울공연 등 대외공연을 적극 추진하여
울산의 문화 역량을 대외에 알리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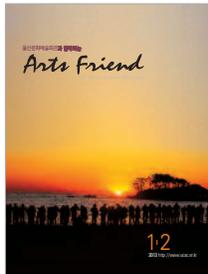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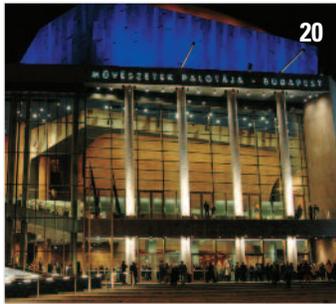
아울러, 계절별 테마가 있는 화단 조성과 휴게시설 등을 마련하여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항상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이 형 조





COVER STORY |

다사다난했던 임진년(壬辰年)을 보내고 대망의 계사년(癸巳年)이 밝았다. 겨울철 최고의 출사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서 사진작가들이 명선도의 일출을 담기 위해 분주하다.(표지사진:이백호)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 04 ■ 2013년 공연·전시
2013년 기획공연
2013년 기획전시
2013년 시립예술단 공연
- 08 ■ 기획전시
한국문인화 초대전
- 10 ■ 시립예술단 공연
[교향악단] '2013 신년음악회'
[합창단] 제81회 정기연주회 '2013 신년음악회'
[교향악단] 제162회 정기연주 시리즈 名作 I '브람스 교향곡 3번'
[교향악단] '겨울방학 청소년 음악회'
[무용단] '비나리'
- 18 ■ 기획공연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 20 ■ 예술을 말하다
부다페스트 예술공전
이탈리아 오페라(3) - 베르디(1)
아르침볼도의 <루돌프 2세의 초상>
발레에 대한 로망 -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 33 ■ 1·2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1·2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1·2월호 | 통권 제161호

-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 발행인 / 이형조 ●편집인 / 안종철
- 기획·편집 / 김현욱,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 디자인·제작 / 동방디앤피 T. 052)266-8500

Arts Friend

울산문화예술회관 2013년 기획공연 (상반기)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상설 기획공연으로 자리 매김한 '모닝콘서트', '스위트콘서트', '수요열린예술무대 '뒤란'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다양한 주제로 매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여 다수의 고정 여성관객을 확보하고 있는 '모닝콘서트'는 3월 28일을 시작으로 상반기 총 4회 공연되고, 관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뮤지컬을 소재로 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만날 수 있는 '스위트콘서트'는 새로운 진행자 정선아(뮤지컬 배우)의 진행으로 3월 7일, 5월 14일(2회) 만날 수 있다. 수요열린예술무대 '뒤란'은 2월 둘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에 소공연장에서 개최되고, 5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관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초청 기획공연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울산에 첫 선을 보인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이 올 상반기 1월 27일과 3월 30일, 6월 15일 다시 울산을 찾아오고,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공연 '마법천자문' (4. 13 ~ 4. 14), 사랑과 이별, 갈등과 화해, 애증과 증오가 하나로 엮힌 진한 감동의 남녀탐구보고서 조재현, 배종옥의 '그와 그녀의 목요일' (5. 10 ~ 5. 11)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다.



2013년 상반기 기획공연 일정

1. 특별기획공연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 1/27(일), 3/30(토), 6/15(토)
2. 어린이를 위한 「마법천자문」 : 4/13(토) ~ 4/14(일)
3. 오전 11시 「모닝콘서트」 : 3/28(목), 4/30(화), 5/30(목), 6/27(목)
4. 조재현, 배종옥의 「그와 그녀의 목요일」 : 5/10(금) ~ 5/11(토)
5. 뮤지컬 갈라 「스위트콘서트」 : 3/7(목), 5/14(화)
6. 수요열린예술무대 「뒤란」 : 연중 공연

울산문화예술회관 2013년 기획전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기획전시를 추진해 온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기획전시'를 목표로 2013년 연간 기획전시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올해 첫 기획전시의 문은 「한국 문인화 초대전」이 연다. 1월 22일부터 제1전시장에서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울산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3월에는 우리나라 구상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수 작가들의 대형 구상회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국 구상회화 초대전」이 전시장 전관에서 펼쳐지며,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은 4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김창열, 김환기, 이대원, 이우환, 장욱진, 천경자 등 관람객이 다시보고 싶은 작품으로 꼽았던 작가들과 함께 변시지, 변종하, 전혁림 등 그동안 소개하지 못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하여 내용적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이와 함께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에서 봄이나 가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야외전시를 연중 확대하여 추진한다. 전국 우수 조각가들을 초청하여 마련하는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이 2월부터 총 3부로 나누어 연말까지 상설로 전시된다. 지역 최대의 공공전시장으로서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에도 힘써오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올해에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전시장 1층 복도공간을 상설전시장으로 조성하고 작가를 공개모집, 연중 릴레이 형식의 「올해의 작가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적인 여건 및 각종 부담으로 인해 전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 의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7월에는 전시장 전관에서 「지역 우수작가 초대전」을 통해 문화도시 울산의 기틀을 다져온 지역의 원로 및 중견작가들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 김시형 작
〈한국 문인화 초대전 출품작가〉
2. 이태길 작
〈전국 구상회화 초대전 출품작가〉
3. 야외조각전 전경
4.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5. 미술교육 관람 전경
6. 기획전시 관람 전경

전시명	일정	기간	장소
한국 문인화 초대전	1. 22~2. 11	20일간	제1전시장
전국 구상회화 초대전	3. 14~3. 25	12일간	제1,2,3,4전시장(전관)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4. 19~5. 19	31일간	제1전시장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2월~12월	연중	예술의숲 야외전시장
올해의 작가 개인전	3월~12월	연중	상설전시장(확충)
지역 우수작가 초대전	7. 25~7. 30	6일간	제1,2,3,4전시장(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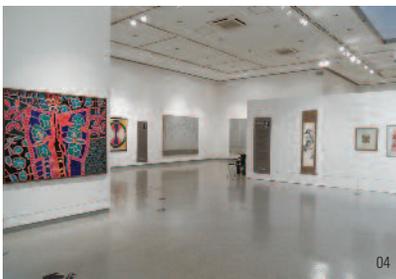
01



02



03



04



05



06

Arts Friend

울산문화예술회관 2013년 시립예술단공연

참신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울산시립예술단이 2013년에도 더욱 풍요롭고 이색적인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



정통 클래식음악과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 오페라, 발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던 울산시립교향악단은 1월 18일(금)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한 해의 출발을 알린다. 2012년 북미순회연주로 국제무대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과시한 시립교향악단은 4월 전국교향악축제에 초청받아 다시 한번 클래식음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또한, 베토벤, 차이콥스키, 브람스 등 세기의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명작시리즈를 정기연주회로 마련하는 무대가 2013년에도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홍재 지휘와 국내 최정상 협연자의 연주로 이어진다. 아울러, 5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음악회가 펼쳐지고, 어린이를 위한 해설이 있는 콘서트, 세계의 명화(名畵)를 감상하면서 듣는 클래식음악, 귀에 익은 유명한 영화 삽입곡, 오페라 갈라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다.

울산시립합창단



2013년 6월이면 울산시립합창단이 약관에 드는 스무살이 되는 해이다. 정통합창연주 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이색적인 무대로 합창의 틀을 깬 공연을 선보여 온 시립합창단이 다시 한 번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울산시립합창단은 1월 22일(화) 2013 신년음악회를 통해 첫무대를 열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미해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못 말리는 베토벤' 시리즈와 한여름 밤을 시원하게 해 줄 '무서운 음악회' 등 관객과 함께 즐기는 기획공연이 업그레이드되어 찾아온다. 이밖에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면면을 노래로 만들어 문화상품으로 재탄생 시킨 '울산의 노래'와 시립합창단의 스무살 생일파티가 될 '창단 20주년 기념콘서트' 등 놓치면 아까운 무대들이 줄을 잇고, 울산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나라 음악계에는 최정상의 실력을 뽐내게 될 '한국합창대제전' 과 인근 지역 합창전문단체들과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되는 '3개 시·도 교류음악회' 등 왕성한 대외활동도 계속된다.



전통과 현대, 고전과 창작 등 아름다운 춤사위를 한 폭의 그림처럼 무대에 펼쳐내는 울산시립무용단에게 2013년 한 해는 설렘임이다. 2월 한 해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 무대로 막이 오르는 시립무용단의 행보에 '한·카수교 50주년 기념공연(가제)'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규모로 펼쳐질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면서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등극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정기공연으로 '대장금'과 '백색 깃털의 사랑'이 관객들을 다시 한 번 매료시키기 위해 준비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춤을 만날 수 있는 'K.D 슈퍼스타' 시리즈, 아름다운 우리소리 국악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드라마' 등이 마련된다.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합창단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바쁘게 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음의 여유와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원의 행복', '교과서음악회', '동요세상' 등 친근하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특히 청소년과 가족단위의 관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합창단은 2013년에도 이색적인 기획으로 다양한 관객들이 공연문화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10여회의 공연으로 입지를 확고히 한 찾아가는 예술단은 울산시립예술단이 함께 만들고 있으며, 시민들의 폭넓은 문화 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공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복지단체와 시설, 병원, 복지 학교 등을 방문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특별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공연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이나 크고 작은 현장의 규모와 관객의 성향에 맞게 재구성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2013년에도 문화 사각지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한국문인화 초대전

기간 2013. 1. 22(화) ~ 2. 11(월), 20일간
장소 재전시장 (* 설날 휴관)



● 학천 김시형

- 한국서예협회 부이사장, 한국문인화연구회 회장
- 대한민국서예대전 및 대한민국문인화대전 초대작가
- 대구광역시서예대전 초대작가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의 첫 기획전시 '한국 문인화 초대전'이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명의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인화란,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전문 화원이 아니라 인격이 고매하고 학문이 깊은 선비나 사대부가 여흥으로 수묵과 담채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으로 중국 북송 시대부터 유래 되었다. 서화나 서예, 인물화, 묵죽화, 말 그림 등 주제에 구애받지 않지만 직업적으로 그린 그림과는 기교면이나 담고 있는 정신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들의 그림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시(詩)·서(書)·화(畵)가 조화를 이루는 문인화

는 실경의 기교를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는 형상 너머에 있는 정신과 뜻을 담고자 한다. 따라서 자연을 담되 시를 짓는 정성과 글을 쓰는 정갈한 마음으로 산수, 화조, 사군자 등을 담아낸다. 화폭에 펼쳐진 세계에는 선비들이 추구했던 탈속의 담백한 서정과 운치, 대쪽같은 절의와 기개, 낭만과 유연함, 조화와 풍요, 여유로움, 그리고 해학이 공존하고 있다.

오늘날 문인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옛 선비들이 문인화속에 담고자 했던 정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덕목들이다. 선비들이 추구한 굳은 절의와 기개, 유연함과 여유로움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작가들은 문인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진 이상의 문인화가들로 난해한 현대미술과 다원화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흐름 속에서 한국 문인화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진솔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문인화가들에게는 문인화의 전통 계승과 현대적인 재해석 사이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서예장르에서도 상당한 연륜이 요구되는 문인화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신년 초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설날을 제외하고 관람이 가능하다. 고향을 방문한 가족들과 함께 전시장에서 잠시나마 가슴 가득히 묵향을 머금고 조용히 자신을 성찰해 보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글 | 박영진(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 단계 김인숙 •

- 울산대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개인전 3회, 울산미술협회 문인화분과장
- 울산롯데백화점, 가족문화센터 강사



• 우송현 김영삼 •

-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 심사위원장 역임
- 국전 특선 3회, 동아미술상 수상 및 동 초대작가
- 개인전 12회, 대전대 서예과 겸임교수



• 소석 구지희 •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개인전 6회, 초대전 7회
- 경희대 대학원 서예 문인화 지도자과정 출강



• 화정 김무호 •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역임, 서울시미술장식물 심의위원
- 단국대, 예술의 전당, 홍익대 디자인미술교육원 출강

• 일칭 김홍자 •

-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수상(93)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개인전 9회
- 서울교육대, 한국교원대 출강, 한국서예협회 문인화분과위원장



• 송경 이재영 •

- 대한민국서예대전, 대한민국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심사
- 대한민국현대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
- 개인전 3회, 울산서예협회 부지회장, 창묵회 회원



[울산시립교향악단]

2013 신년음악회

울산시립교향악단
2013. 1. 18(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백주영(바이올린)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지휘자 김홍재

Beak Ju Young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2000년 뉴욕 Young Concert Artists 국제 오디션에서 450여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하며 전문 연주자로 도약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은, 현지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뉴욕과 워싱턴의 성공적인 데뷔 독주회 및 2002년 5월 뉴욕 카네기 홀과 링컨 센터의 뉴욕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에서 당시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이던 쿠르트 마주어 (Kurt Masur)에게 극찬을 받으며 국제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입지를 굳혔다.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예술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미국 커티스 음악원으로 도미한 백주영은 1995년부터 시벨리우스, 파가니니, 킹스빌, 롱티보 등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 차례로 상위 입상을 하였으며, 1997년 서울에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2회 국제 동아 콩쿠르에서 세계적 국제콩쿠르 입상자들과 겨루어 당당히 1위 및 금메달리스트로 우승하며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4개의 특별상과 함께 3위 및 동메달을 거머쥐었고, 그 후 2001년에는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쿨에서도 입상함으로써 한국을 빛내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은 NHK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슬로 심포니, 싱가포르 심포니, 동경 심포니, 서울 바로크 합주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뉴욕의 카네기 홀, 링컨 센터,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 동경의 산토리 홀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KBS 교향악단, 부천시향, 서울시향, 부산시향, 대전시향 등과 협연 및 전국 순회 초청 독주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실내악에 대한 사랑도 깊은 그녀는 미국 말보로 페스티벌, 라비니아 페스티벌, 대관령 음악제, 일본 쿠사츠 음악제 등에서 초청 연주를 해오고 있으며, 세종 솔로이스츠의 리더 역임 후 국내 최초의 상주 실내악단인 "금호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창단 멤버로서도 활약중에 있다. 커티스 음대와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 및 맨하탄 음대와 프랑스 파리 국립 음악원의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백주영은 200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최연소 교수로 부임하여 왕성한 연주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2013년 신년음악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완벽한 테크닉으로 시민들에게 항상 좋은 음악을 선사하는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지휘로 1월 18일(금) 저녁 8시 클래식을 사랑하는 울산시민들에게 새해를 여는 첫 음악회로 다가간다. 첫 곡은 글링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으로 경쾌하고 힘차게 시작된다. 글링카는 러시아 고전 음악의 아버지로 후대 러시아 작곡가들과 특히 러시아 5인조에 많은 영향을 준 작곡가이기도 하다. 이어 러시아 대표적인 작곡가인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1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너무나 유명한 바이올린 곡으로 이번 협연은 2009년도에 울산시향과 교향악축제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었던 서울대 교수 백주영씨가 협연한다. 2부에서는 프랑스의 현대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인 프랑시스 풀랑의 신포니에타가 연주된다. 풀랑크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포니에타는 1947년 완성되었다. 다른 교향곡들 같이 길지 않고, 크게 유창하지도 않지만, 귀에 잘 들어오는 멜로디와 뇌리에 확실히 각인되는 리듬이 매우 매력적인 곡이다. 2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곡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두 번째 곡 몰다우이다. 이 곡은 2011년 울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 태화강 야외음악회에서 연주되었던 곡으로, 체코의 대표적인 작곡가 스메타나의 애국심이 누구보다도 잘 표현된 곡이다. 울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 2013 신년음악회는 연말연시 바쁜 일정 속에서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달래줄 오아시스 같은 휴식을 울산시민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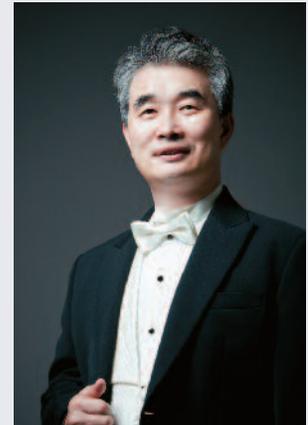
- 글링카 |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Glinka(1804~1857, 러시아) | ‘Ruslan Ludmilla’ Overture
-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 풀랑 | 신포니에타
Francis Poulenc (1899~1963, 프랑스) | Sinfonietta
- 스메타나 | 몰다우
Smetana (1824~1884, 체코) No.2 ‘Moldau’ From ‘My Fatherland’

[울산시립합창단 제81회 정기연주회]

2013 신년음악회

울 산 시 립 합 창 단
2013. 1. 22(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구 천(예술감독 겸 지휘자)
특별출연 조정현(오보에)
입 장 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지휘자 구 천



오보에 조정현

독일 쾰른 국립음대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하였고,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NSM) 교환학생 과정과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솔리스트과정을 수료하였다.

Pietra Rigure 국제 콩쿨(Italy) 1위, 동아 콩쿨 2위, 음협 해외파견콩쿨 2위, 베를린 멘델스존 국제 콩쿠르 Finalist(목관5중주) 등의 수상과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 쾰른 Junge 필하모닉, 쾰른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니더라인 챔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을 하였다.

Villa Musica 음악재단, Live Music Now(Yehudi Menuhin 재단)소속 연주자 역임, 또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 수석('00-'07)으로 독일 프랑스 정기연주 투어(매년 50여회 연주), 국제 Beethoven Festival, Dubrovnik 국제Festival, Rheingau 음악축제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국내활동으로 W 필하모닉, 카이로스 앙상블 예술의 전당 협연, 카이스트 40주년 기념음악회 협연, 전주시립교향악단, 충남교향악단 객원수석, W 필하모닉 수석 역임하였으며, 2011 "월요일에 만나는 비르투오조" 초청 독주회(세라믹팔래스홀)

현재, 대명페스티벌오케스트라 수석, 코리아 솔로이츠 오케스트라 수석, 목관앙상블 "나루" 리더, 카르포스 오보에 앙상블 멤버, 세종대, 숭실대, 선화예중, 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Jo Jeong hyeon



2013년 계사년(癸巳年) 창단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시립합창단에서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특별공연으로 제81회 정기연주회 『2013 신년음악회』를 마련한다.

새해의 희망찬 출발과 울산시립합창단의 비전(Vision)을 제시하고자 준비한 신년음악회에서 “매 공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앙상블과 하모니로 진화하고 있다”는 호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주회는 힘차고 신명나는 남성합창을 첫 무대로 마련하고 합창의 감미로운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음악적인 무반주 합창을 혼성과 여성합창으로 그리고 오보에(Oboe) 특별연주와 반주로 구성되어 있는 짜임새 있고 색깔 있는 연주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독일에서 유학하여 차세대 리더로 조명 받고 있는 오보에 조정현씨의 협연을 통해 미래의 거장이 쏟아내는 금빛 연주와 더불어 울산시립합창단의 자신감 있는 소리의 향연을 느껴보기 바란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 남성합창
 - 기쁜 날 - Don't Cry, Little Girl, Don't Cry | Maceo Pinkard
- 무반주 혼성합창
 - 덩동 | 엄경숙 - 산길 | 박태준/곡, 이선택/편곡
- 무반주 여성합창
 - 수선화 | 강은수 - 바위고개 | 이흥렬/곡, 나영수/편곡
- Concerto on Themes from the Opera "La Favorita" by Donizetti for oboe and piano (Oboe.조정현, Piano.손경주) | Antonio Pasculli(1842-1924)
- 혼성합창
 - 울기등대의노래 | 이건용 - 바다에서 은빛 꿈을 꾸다 | 백현주
- 혼성합창
 - 사랑과 사랑 | 이순교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62회 정기연주 시리즈 名作 I]

브람스 교향곡 3번

울산시립교향악단
2013. 2. 22(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세르지오 티엠포(피아노)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Sergio Tiempo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티엠포

-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장한나가 유달리 선호하는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티엠포!
- 8살의 나이로 참가한 런던의 얼링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가장 재능 있는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특별상을 비롯해서 1등상 4개 등 모두 다섯 부문에서 수상
- 1986년 벨기에의 알렉스 드 브리(Alex De Vries), 2000년 독일의 다비도프 상 수상
-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클라우디오 아바도, 구스타보 두다멜, 샤를르 듀투와,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레오나드 슬랏킨,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 마이클 틸슨 토마스 와 오케스트라 -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휴스턴 심포니, 로스 엔젤레스 필하모닉, 몬트리올 심포니,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쿄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도쿄 필 하모닉 - 등 유럽, 아메리카, 일본 등에서 활발한 활동
- 2006년, EMI 를 통해서 당당히 첫번째 솔로 앨범 발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피아노 작품, 무소르크스키 '전람회의 그림', 쇼팽 '녹턴 작품9번', 라벨 '밤의 가스파르' 등이 수록
- 직감적이고 즉흥적이며 재미있는 연주자로 통하며, 무대에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피아니스트
- 1986년,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홀에서 위대한 피아니스트 시리즈에서 데뷔 무대
평론가와 음악가들 사이에서 그 시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으며, 빠른 속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
- 수많은 페스티벌에서 환영받는 피아니스트
뮌헨의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친구들', 오스트리아의 짚초부르크, 독일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스위스의 코마르&베르비에,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페스티벌 등을 참여 루가노에서 열리는 프로젝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에 고정 출연자로 해마다 연주
-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넬슨 프라이어, 니키타 마갈로프로부터 사사





- 차이콥스키 | 1812년 서곡
- 차이콥스키 | 피아노협주곡 제1번 내림나 단조, 작품 23번
- 브람스 | 교향곡 제3번

2013년 명작시리즈 첫 번째 순서 '브람스 교향곡 3번'

이번 명작시리즈는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은 1812년 9월,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모스크바를 침공하였을 때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시를 불태워 버려 나폴레옹 군대가 결국 굶주림과 추위에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고 마는데, 이를 기념하기위해 모스크바에 세운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 축전용으로 의뢰받아 작곡된 곡이다. 일반적으로 관현악곡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교회 종이나 대포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클래식 초심자들에게는 엄청난 극적 쾌감을 선사하고, 오디오 마니아들에게는 음반과 음향기기의 재현 능력을 가늠할 잣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협주곡은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의 감독이었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 초연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완성된 곡을 가져갔을 때 루빈스타인으로부터 혹평을 받고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자존심 강했던 차이콥스키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이곡을 독일의 피아노 연주가이자 지휘자인 한스 판 벨로에게 재현정했고, 결국 벨로가 초연자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 곡은 화려한 기교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모든 피아니스트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이며,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인기 있는 피아노협주곡이기도 하다.

2부 교향곡은 브람스 제3번이 연주되어진다. 브람스 교향곡 제3번 3악장 도입부에서는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선율이 흘러나오는데, 프랑스의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란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 영화 중에 이 교향곡의 3악장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이후 교향곡 3번은 브람스 작품 중에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곡이 되었다. 당대에 이 교향곡이 갖는 남성적인 강건함과 웅장하고 중후함 때문에 '브람스의 영웅 교향곡'이라 불렸다.

첼리스트 미샤 마이이스키, 장한나가 가장 좋아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티엠포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티엠포가 내한한다. 1986년,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홀에서 '위대한 피아니스트' 시리즈에서 데뷔하여 클라우디오 아바도, 구스타보 두다멜, 샤를르 두두와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협연하였으며, 2006년 EMI를 통해 당당히 솔로앨범을 발매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미 2008년 1월 9일 서울시향과의 협연, 2010년 10월 15일 정명훈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취임 10주년 기념 음악회 협연으로 잘 알려져있는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티엠포와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있을 수 없는 감동의 하모니를 감상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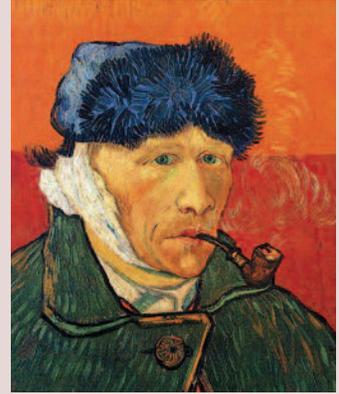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울산시립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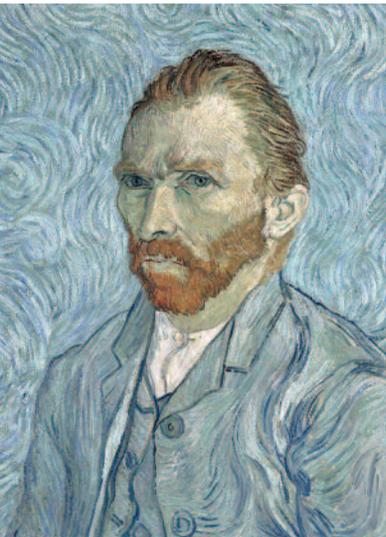
겨울방학 청소년 음악회

울산시립교향악단
2013. 2. 1(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종규(부지휘자)
입장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Vincent van Gogh



울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2013 畫音시리즈

겨울방학 청소년 음악회 미술과 음악의 운명적인 만남.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인다 ...’

미술과 음악은 전혀 다른 장르이지만, 결국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

2013년 화음시리즈 그 첫 번째 순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로 울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미술작품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음악회를 기획하였다. 화음시리즈는 2011년도 평균 관객점유율 1,000여명에 자랑하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인기프로그램으로 이번 2013년도에 청소년들을 위해 재구성하였다. 겨울방학 내내 추위에 움츠렸던 청소년들에게 미술과 음악이 흐르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따뜻한 감동의 온기를 전해줄 것이다.

인상파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

화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의 한명이 ‘빈센트 반 고흐’이다. 네덜란드 인상주의 화가로 평생을 무명의 가난한 화가로 살며, 죽기 직전까지 조울증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에 시달렸으며, 결국 권총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생을 마감한 천재화가 ‘고흐’ 편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단돈 1만원 팔아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왜 사람들은 고흐의 작품에 열광하는가? 고흐의 자화상이 모델이 없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고흐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를 극의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의문점들을 풀어보고 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사조까지도 되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울산시립무용단]

비나리



울산시립무용단
2013. 2. 21(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안무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특별출연 이춘희, 정순임
입장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전통과 현대, 고전과 창작을 오가며 다양하고 참신한 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울산시립무용단이 2013년 출발을 알리는 '비나리' 무대를 2월 21일(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마련한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 한 해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로 아름다운 춤사위와 지역 소리꾼들이 선사하는 경기민요와 판소리가 어우러져 전통의 미(美)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글 | 신박범(울산시립무용단 단무장)

program

- 비나리
- 강강수월래
- 모듬 협주곡
- 경기민요(이춘희)
- 판소리(정순임)
- 비상



정순임

▪ 경력사항

- 한국판소리보존회 경북지부장
-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국악과 외래 교수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 수상내역

- 포항MBC 삼일문화상, 경주시 문화예술상(2012)
- KBS 국악대상(1997)
- 남도예술제 판소리 대통령상(1985)



이춘희

▪ 경력사항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장, 한국국악협회 부이사장
-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 초대교수, 한양대, 경북대, 백석대 등 출강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 수상내역

- 국민훈장 화관문화훈장(2004)
- 제3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2000)
- 제23회 한국방송대상 국악인부문 대상(1996)
- 한라문화제 대통령상(1986)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원범의 피아니스트 콘서트

일시

2013. 1. 27(일) 15:00

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1천원(회원 30%, 초·중·고등학생 50% 할인)
 협연 유민형(비올라), 김재준(첼로)
 출연 콰르텟엑스, 유민형(비올라), 김재준(첼로)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 브람스

작곡가이자 잡지사 사장님이었던 슈만은 자신의 잡지를 통해 천재 두 명을 발굴해낸다. 한 사람은 쇼팽, 또 한 사람은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다. 쇼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지만, 브람스 역시 천재 피아니스트로 슈만의 눈에 띄었다. 슈만은 브람스의 작품에 관심이 있었고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에 데뷔하게 된 브람스는 그러한 시선들이 부담이 되었고, 바로 이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생겨난다. 작곡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모두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판도 강했고, 또 세상에 함부로 내보이기 싫다는 자존감이 극대화된 것이다. 음악계의 산타클로스라고 불릴 정도로 덩수룩하게 기른 수염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러나 이 수염은 당시의 유행이었다. 모든 남자들은 그 같은 수염을 길렀는데 브람스가 좀 더 기른 것뿐이다. 그도 젊었을 때는 말끔했던 청년이었다. 문제는 그 사진을 보면 아무도 브람스인 줄 모른다는 것. 브람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그토록 사랑했던 클라라 슈만이 사망한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난다. 그는 당시의 모든 젊은이들이 모토로 삼아 온 문장 그 자체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살았다.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



▲ 진행 조원범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프로그램

1. 헝가리 무곡 Hungarian Dances for Orchestra No.5
 “헝가리 무곡”은 독일 출신의 작곡가인 요하네스 브람스가 작곡한, 그의 가장 대표작 중 하나이다. 주요 선율은 헝가리의 무곡인 차르다시가 사용되었으며 헝가리 집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 21개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번이 유명하다.
2. 현악사중주 1번 2악장 String Quartet No.1 in C minor Op.51 2nd mov.
 어머니와 사별 후에 작곡했다. 전체적으로 우울하며 격렬한 분위기지만 느린2악장은 역시 성스러운 정도로 아름답고 피날레는 격정적으로 절규한다.
3. 현악사중주 2번 4악장 String Quartet No.2 in A minor Op.51 4th mov.
 브람스 나이 40세인 1873년에 작곡되었다. 이 곡은 8년의 장고 끝에 완성한 현악사중주곡들 중 한 곡이다. 브람스는 모두 23곡의 현악사중주 작품을 썼지만 20곡을 파기하고 3곡만 남겼을 정도로 창작에 신중을 기했다. 4악장은 그의 현악사중주곡 중 최고의 피날레가 펼쳐진다.
4. 현악육중주 1번 2악장 String Sextet No.1 in Bb major Op.18 2nd mov.
 곡 전체적으로 브람스 특유의 정열적이고 신선한 색채가 풍부하게 느껴지는 실내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곡이다. 독일의 민요조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2악장은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 때문에 ‘브람스의 눈물’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5. 현악육중주 2번 4악장 String Sextet No.2 in G major Op.36 4th mov.
 ‘아가테 육중주’라고 불리는 이 곡은 브람스가 청년 시절 아가테와 사랑에 빠졌으나 구속당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녀를 떠나 보내고 ‘아가테 테마(A-G-A-(T)H-E)’를 사용해 만든 곡이다.



▲ 콰르텟엑스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부다페스트 예술공전

이탈리아 오페라(3) - 베르디(1)

아르침볼도의 <루돌프 2세의 초상>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Part.2 1·2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1·2월의 공연·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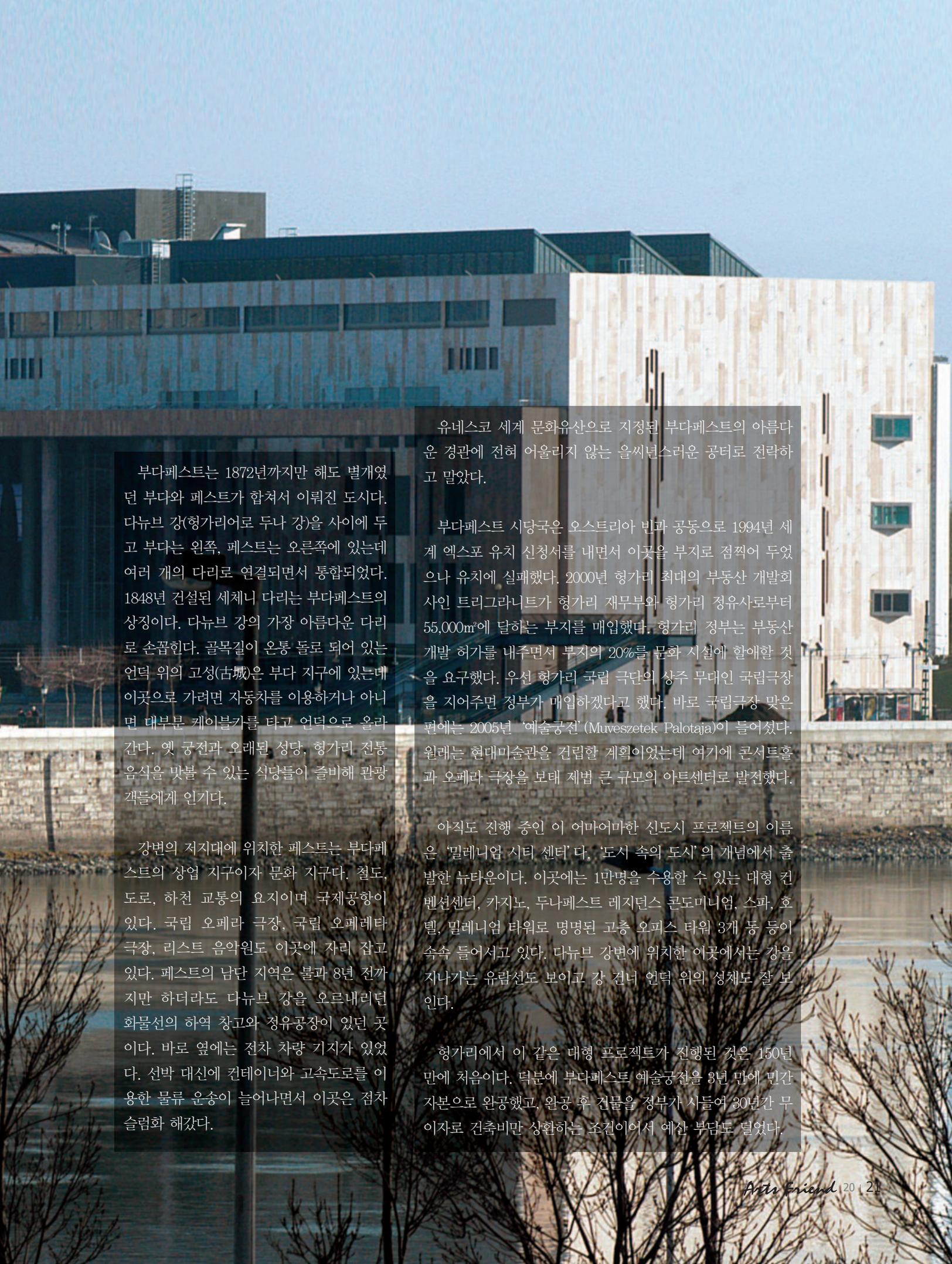
부다페스트

예술가들의 공간

글 |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사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수도이자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파리, 프라하, 빈 등과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다. '다뉴브의 진주', '동유럽의 파리'라는 애칭이 이를 잘 말해준다.



부다페스트는 1872년까지만 해도 별개였던 부다와 페스트가 합쳐서 이뤄진 도시다. 다뉴브 강(헝가리어로 두나 강)을 사이에 두고 부다는 왼쪽, 페스트는 오른쪽에 있는데 여러 개의 다리로 연결되면서 통합되었다. 1848년 건설된 세체니 다리는 부다페스트의 상징이다. 다뉴브 강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힌다. 골목길이 온통 돌로 되어 있는 언덕 위의 고성(古城)은 부다 지구에 있는데 이곳으로 가려면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케이블카를 타고 언덕으로 올라간다. 옛 궁전과 오래된 성당, 헝가리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즐비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강변의 저지대에 위치한 페스트는 부다페스트의 상업 지구이자 문화 지구다. 철도, 도로, 하천 교통의 요지이며 국제공항이 있다. 국립 오페라 극장, 국립 오페레타 극장, 리스트 음악원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페스트의 남단 지역은 불과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뉴브 강을 오르내리던 화물선의 하역 창고와 정유공장이 있던 곳이다. 바로 옆에는 전차 차량 기지가 있었다. 선박 대신에 컨테이너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물류 운송이 늘어나면서 이곳은 점차 슬럼화 해갔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경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을씨년스러운 공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다페스트 시당국은 오스트리아 빈과 공동으로 1994년 세계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내면서 이곳을 부지로 잠적어 두었으나 유치에 실패했다. 2000년 헝가리 최대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트리그라니트가 헝가리 재무부와 헝가리 정유사로부터 55,000㎡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했다. 헝가리 정부는 부동산 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부지의 20%를 문화 시설에 할애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헝가리 국립 극단의 상주 무대인 국립극장을 지어주면 정부가 매입하겠다고 했다. 바로 국립극장 맞은 편에는 2005년 '예술궁전' (Művészetek Palotája)이 들어섰다. 원래는 현대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콘서트홀과 오페라 극장을 보태 제법 큰 규모의 아트센터로 발전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어마어마한 신도시 프로젝트의 이름은 '밀레니엄 시티 센터'다. '도시 속의 도시'의 개념에서 출발한 뉴타운이다. 이곳에는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센터, 카지노, 두나페스트 레지던스 콘도미니엄, 스파, 호텔, 밀레니엄 타워로 명명된 고층 오피스 타워 3개 등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다뉴브 강변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강을 지나가는 유람선도 보이고 강 건너 언덕 위의 성채도 잘 보인다.

헝가리에서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150년 만에 처음이다. 덕분에 부다페스트 예술궁전을 3년 만에 민간 자본으로 완공했고, 완공 후 건물을 정부가 사들여 30년간 무이자로 건축비만 상환하는 조건이어서 예산 부담도 덜었다.

Budapest



1억3,200만 유로(약 2,000억원)를 들여 지은 '예술궁전'은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벨라 바르토크의 이름을 딴 1,700석 규모의 '바르토크 국립 콘서트홀'(입석 136석 포함)을 비롯해 루드비히 현대미술관, 실내 오페라와 발레, 현대무용 공연을 위한 축제극장(450석)으로 구성돼 있다.

축제극장에서는 클래식 음악공연은 물론 실내(소극장) 오페라, 재즈 콘서트, 월드뮤직, 패션쇼가 열린다. 루드비히 미술관에는 1층에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2층과 3층에는 헝가리 현대 화가들의 최근작이 상설 전시돼 있다. 물론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은 바르토크 국립 콘서트홀이다. 민간이 건설해 완공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국제 현상 설계경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당시 43세에 불과했던 헝가리 출신의 무명 신예 건축가 가보르 조보키에게 설계를 맡겨 설계비를 절약하는 대신 세계 최고 권위의 음향 컨설턴트를 초빙했다. 버밍엄 심포니 센터, 루체른 KKL,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센터의 음향 설계를 맡은 ARTEC사의 대표 러셀 존슨이다. 외양보다 내실을 기하자는 생각에

서다. 화려한 겉모습에만 신경을 쓸 뿐 극장 내부는 컨설팅 하나 제대로 받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국내 공연장이 외화내빈(外華內貧)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꽤 대조적이다. 내부 마감재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 무대와 객석은 물론 로비에도 신경을 썼다. 로비 천장을 최대한 높여 답답함을 덜었고 로비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야외에서 눈비를 맞지 않으면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테라스도 마련해 관객 편의도를 높였다. 식음료 코너에는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어 공연장의 격조를 더 높여준다.

공연장 설계에서 건물의 랜드마크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술궁전은 그리 뽀낼 만한 외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공연장은 주로 밤에 찾는 공간이다. 야간에는 웬만한 건물도 조명만 잘 해 놓으면 볼 만하다. 예술궁전은 다뉴브 강변에 자리한 위치 때문이라도 눈에 잘 띈다. 밀레니엄 시티 센터에서 '문화 블록'은 일찌감치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 잡았다.

헝가리 국립 콘서트홀은 2002년 8월 착공해 2004년 가을 완공했다. 2005년 1월 8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3월 15일 '부다페스트의 봄' 축제 개막에 맞춰 공식 개관했다. 졸탄 코치슈가 지휘하는 헝가리 국립 교향악단이 모차르트를 연주하면서 문을 열었다. 시운전 기간에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그리스 출신 레온다노 카바코스,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 등이 무대에 섰다. 사실 개관 전까지만 해도 부다페



스트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만한 무대는 1907년에 지은 리스트 음악원 홀(1,200석)밖에 없었다. 음악원 오케스트라, 헝가리 국립 교향악단,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외국 교향악단까지 가세해 매일 연주가 끊이지 않았다. 1865년 다뉴브 강변에 문을 연 비기도 콘서트홀은 겨우 600석에 불과하다.

바르톡 국립 콘서트홀 무대 정면에는 2,500만 유로(약 375억원)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콘서트홀 3층 양쪽 벽면에는 58개의 저주파 흡음실을 마련해 문을 여닫을 수 있게 했다. 3단계로 움직이는 천장의 캐노피(반사판), 흡음 커튼으로 잔향 시간을 1.2~1.8초로 조절하는 ‘움직이는 공연장’이다. 콘서트홀 내부의 높이는 25m, 폭 25m, 길이 52m로 고딕 성당만한 크기다. 개관 당시에는 잠잠했던 파이프오르간은 2006년 5월부터 웅장한 화음을 내기 시작했다. 스톱 92개 6,804개의 파이프를 자랑한다(파이프오르간은 스톱과 파이프가 많을수록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다). 객석 수는 1,699석(입석 136석 포함)이지만 무대 앞쪽에 추가로 190석을 설치할 수 있어 음악 장르나 공연의 필요에 따라 객석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케스

트라 피트로도 활용될 수 있다. 컴퓨터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무대 위 대형 음향 캐노피는 초기 반사음의 보장뿐만 아니라 연주자 간의 음악적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준다. 여기에는 무대 조명설비와 레코딩을 위한 마이크, 영화 상영을 위한 스피커까지 장착되어 있다.

콘서트홀에는 졸탄 코치슈가 지휘하는 헝가리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축제극장에는 국립무용단이 상주하고 있다. 헝가리 국립 교향악단보다 더 높은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지휘 이반 피셔)도 정기 연주회 무대를 이곳으로 옮겼다. 2006년부터는 아담 피셔가 이끄는 ‘바그너 인 부다페스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아담 피셔는 이반 피셔의 친형으로 주로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이 끝나면 출연진이 부다페스트로 이동해 콘서트 형식의 앙코르 무대를 갖는 것이다.

콘서트홀 양쪽 벽면에 설치된 잔향실은 84개의 대형 전동 도어를 통해 잔향시간을 최대 4초까지 조절할 수 있다. 레코딩 스튜디오로 사용할 때는 모든 전동 도어를 닫고 흡음 커튼과 흡음 배너까지 사용해 잔향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잔향실 전동 도어에 새겨진 게오르규 요바노비츠의 조각은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은 음향의 고른 확산에도 도움을 준다. 콘서트홀에 딸린 스튜디오에서는 CD와 DVD 레코딩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세미나 룸, 서점, 레스토랑, 커피숍, 음악도서관, 레코드숍과 함께 다뉴브 강이 내려다보이는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파노라마 테라스도 갖췄다. 여섯 개의 전차 노선, 세 개의 버스 노선(야간 버스는 6개),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Art Palace

이탈리아 오페라(3) 베르디(I)

글 |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오페라베이스(Operabase)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다섯 시즌(2007/08-2011/12)동안 문화강국 37개 나라(대한민국도 포함)에서는 1,200여 작곡가들의 오페라 작품이 공연되었다. 이 중에서 베르디의 작품이 가장 많이 공연되었는데, 베르디의 작품은 3,020회로 2위인 모차르트의 작품 2,410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이다. 그 다음으로 푸치니>바그너>로시니 등이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베르디가 2013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다. 이탈리아 오페라 역사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기도 한 베르디에 관해 그의 생애와 작품 경향, 오페라사(史)에 미친 영향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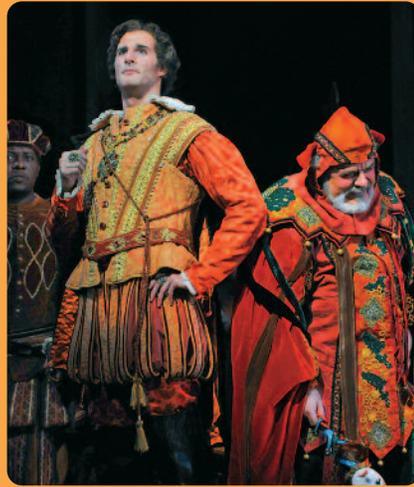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는 1813년 10월 10일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파르마 공화국의 한 도시 부세토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레 론콜레 마을에서 여인숙과 잡화점을 운영하는 부모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7세부터 론콜레 성당의 오르간주자에게서 오르간을 배웠다. 9세 때는 이미 스승을 대신하여 미사에 오르간을 연주할 정도였다. 10세 되던 1823년 부세토의 중학교에 진학을 하여 당시 부세토의 부유한 상인이자 음악애호가이며 아마추어 클라리넷 주자였던 바레찌의 눈에 들어 그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베르디는 바레찌의 주선으로 부세토 시립음악학교 교장이던 프로베찌에게서 작곡기초와 악기연주를 배우게 된다. 이 수업은 베르디가 18세에 밀라노로 유학 가기 전까지 계속 되었고, 뒤에는 그가 스승을 대신하여 부세토 악우협회와 부세토시 악단을 위해 많은 곡을 작곡 혹은 편

곡을 하였다. 1832년 부세토시 장학금을 받아 밀라노로 유학을 갔지만 베르디가 원하던 밀라노 음악원에는 입학할 수 없었다. 당시 오스트리아 령의 밀라노와 프랑스 령의 부세토는 타국이었고 입학 연령이 지난 외국인 베르디는 입학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었다. 베르디는 어쩔 수 없이 스칼라극장의 첼발로 주자이자 가창지도 책임자인 빈첸초 라비니아에게 개인 레슨으로 약 3년간 대위법을 배운다.

이 3년간 그는 단순히 음악이론과 작곡법만 익힌 것이 아니라 작곡가로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지를 정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베르디는 밀라노의 극장가에서 공연되던 당시 유명한 오페라 작품들을 접하게 되고, 오스트리아 지배하의 밀라노였기에 비엔나의 선진 음악 또한 많이 접하였다. 그는 극장을 드나들면서 밀라노의 극장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사람들과도 면을 익히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악관의 이 작곡가는 극장음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베르디는 밀라노에서 공부한 후 다시 부세토로 돌아가 1836년 부세토 시립학교 교사가 되고, 그해 5월 바레찌의 딸 마르게리타와 결혼한다. 부세토 교사 시절에도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꿈을 키워가며 베르디 최초의 오페라 '로체스터'(Rochester 1837)를 작곡했지만 이는 빛을 보지 못했고, 극장에서 공연이 된 최초의 오페라 '산 보니파초의 백작 오베르토' 속에 이 '로체스터'의 음악이 많이 인용되어 등장한다.



1839년 3월 베르디는 가족과 함께 밀라노로 이사를 했다. 오페라 '산 보니파초의 백작 오베르토'는 스칼라극장 지배인이자 당시 밀라노 극장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흥행사 중 한명이었던 메렐리(Bartolomeo Merelli 1794-1879)의 관심을 끌어 1839년 11월 스칼라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이 오페라는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를 계기로 메렐리와 2년간 3작품을 올리기로 계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1838년부터 잇달아 두 아이를 잃고, 1840년에는 아내마저 병으로 잃게 된다. 실의에 빠진 베르디는 만신창이가 되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 와중에 계약으로 인해 억지로 작곡할 수밖에 없었던 희극오페라 '하룻밤의 임금님'은 1840년 9월 스칼라 초연 때 청중들의 심한 야유를 받고 막을 내리야만했다.

굴욕과 좌절로 인해 작곡가의 길을 포기하려던 베르디에게 메렐리는 대본가 슐레라가 집필한 구약성서에서 소재를 채택한 웅장한 드라마 대본을 보여준다. 이에 다시금 강한 창작 영감을 얻어 작곡한 오페라가 '나부코'이다. '나부코'는 1842년 3월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당시 29세의 베르디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이 오페라에 의해서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이후 50년의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불멸의 대작곡가로서의 이름을 남기는 첫발을 내디디게 된다.

기원전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빌로니아 왕 나부코도노조르의 폭정과 바빌로니아에 유배되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젊고 강한 리듬, 간결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멜로디와 조국애를 그 기저에 두고 있어 당시 오스트리아 압제

하의 북 이탈리아에서 일고 있던 이탈리아 독립과 통일의 운동이 맞물리면서 관객들의 대단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나부코'의 성공으로 스칼라 극장과 매시즌 한 작품씩 작곡해주기로 계약을 맺은 베르디는 차기작으로 다시 한번 슐레라와 합작하여 같은 애국 노선의 '제1차 십자군의 롬바르디아인'을 발표하였다. 11세기 제1차 십자군 당시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인의 용감성과 헌신을 기초로 해서 사랑을 결단인 줄거리로 1843년 2월의 첫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또한 오스트리아의 압제 하의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어 제4막의 합창 "오오, 주여, 고향의 집들을"은 압도적인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베르디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작곡에 몰두한다. 당시 오페라 작곡가는 계약한 극장에서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의 연습을 지도하고 연출도 해야 했으며 처음 3회까지는 공연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관례였다. 밀러드는 작품 의뢰와 마감일에 맞추어야 하는 작곡 및 그에 따른 연습지도, 이전 작품들의 재공연지도 등으로 베르디는 쉴 틈도 없이 일에 쫓기는 신세였다. 그리하여 1842년 '나부코'부터 1857년 '아를도'까지 16년간 20개의 오페라를 창작하는 활발하고 바쁜 시기가 지속된다. 이 당시 힘든 상황에 대해 베르디 자신은 " '나부코' 이후 지금까지 저에게는 잠시도 휴식이 없었습니다. 16년간 고역이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아르침볼도, 《루돌프 2세의 초상》, 1590, 목판에 유채, 68 x 56 cm, 스웨덴 스톡홀름 스테인 성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서 동물의 모양을 본다거나, 어두컴컴한 곳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괴물처럼 보이거나, 천장의 얼룩이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현상은 모두 한 번쯤은 체험해봤을 것이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런 이미지들은 놀랍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괴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다. 이중 영상(dual image) 혹은 변상증(pareidolia)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우리 눈의 착시에 의해 생겨난다. 종종 화가들은 이를 작품에 숨겨 넣었고, 이를 찾아내어 그 감추어진 의미를 읽어 내는 것은 르네상스 이래 교양 있는 지식인들이 즐기던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였다. 이의 예는 서양미술사에 걸쳐 여럿 있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16세기의 화가 아르침볼도(Giuseppe Arcimboldo, 1527-1593)의 초상화들을 들 수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화가 집안에서 태어난 아르침볼도는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나 프레스코 작업을 했다. 1562년에 신성로마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1세가 있던 비엔나로 가서 합스부르크 궁정의 초상화가가 되었고, 프라하의 막시밀리안 2세와 루돌프 2세의 궁정화가가 되어 25년간 세 명의 황제를 모셨다. 왕족들의 초상을 그리는 것이 주된 업무였지만, 의상을 디자인하고 궁정 행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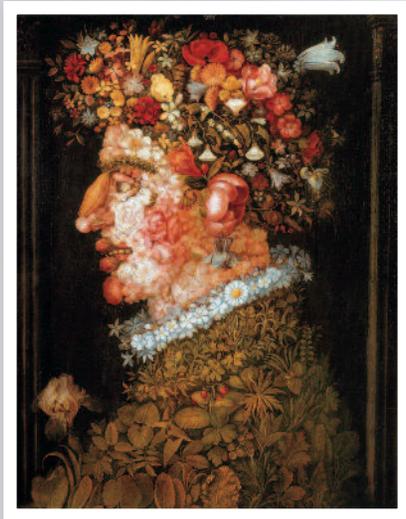
아르침볼도의 루돌프 2세의 초상

글 |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주관하거나, 실내 장식을 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고, “합스부르크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다재다능했다. 그는 말년에 귀족 칭호를 받을 정도로 당대에 큰 명성을 누렸지만, 이후 대두한 계몽과 이성의 시대에는 이상야릇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절하되어 수 세기 동안 잊혀졌다. 그를 다시 발견한 것은 20세기 초의 다다와 초현실주의자들로, 그는 다다와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의 선구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아르침볼도가 그린 종교적인 그림이나 관습적인 초상화의 대부분은 미술사에서 잊혀졌다. 하지만, 그가 그린 채소나 식물, 과일, 물고기, 나무뿌리, 꽃 등을 이용하여 그린 사람의 얼굴은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에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다. 비엔나로 오면서부터 이런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각 동식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리는 작업을 하다가 점차 초상화와 결합시켰다고 한다. 멀리서 보면 보통 초상화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세밀하게 그려진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사람의 얼굴 형태를 만들고 있음에 깜짝 놀라게 된다. 또 이는 마음 내키는 대로 놓은 것이 아니고, 자연에 조예 깊은 화가가 작품의 주제에 따라 주의 깊게 선택한 것이다. 가까이에서 볼 때와 멀리서 볼



아르침볼도, <네 계절> 연작 중 <봄>, 1573, 목판에 유채, 84 x 57cm
 뮌헨 바이에른 주립미술관



아르침볼도, <사서>, 1570, 목판에 유채, 97 x 71cm
 스웨덴 스톡홀름로스터 성



아르침볼도, <정원사>, 1590년경, 목판에 유채, 35 x 24cm
 이탈리아 크레모나 시립미술관

때 달라지는 그림은 물론 재미있고 신기하다. 그렇지만 단순한 여흥을 넘어, 이 진동 사이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함축된 의미들도 생각해볼 만하다.

16세기 유럽은 신대륙 발견과 탐험, 무역이 활발하던 이른바 '대항해시대'였다. 새로운 대륙과 그곳의 새로운 동식물은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큰 호기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아메리카에서 다량으로 유입된 금과 은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카카오와 옥수수, 감자, 고추, 담배 등의 새로운 식물이 들어왔다. 아시아와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향신료와 가지 등의 작물이 소개되었다. 새로운 동식물에 대한 박물관학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수집하는 취미가 왕실과 귀족 사이에 크게 유행했다. 황제를 베르툼누스 신의 모습으로 그린 <루돌프 2세의 초상>에서 그는 호박, 배, 포도, 사과, 완두콩, 쌀, 아티초크, 밤송이, 양파, 파, 체리 등의 갖가지 채소와 과일, 곡식, 꽃으로 그려졌는데, 이 중 귀로 그려진 옥수수나 목에 있는 가지도 당시 유럽에 새롭게 소개된 작물이다.

아르침볼도는 <네 계절>이나 <네 원소> 같은 전통적인 알레고리 뿐 아니라, <사서>나 <정원사>, <요리사> 등의 다양한 초상화를 제작했고, 사람들은 기존의 이상화된 아름다운 초상화를 벗어난 그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에 열광했다. 특히 <정원사>나 <요리사> 등의 직업 연작은 그림을 180도 돌려 보면 사람의 얼굴이 그의 직업과 관련된 정물화로 바뀌어

더더욱 놀라움을 준다. 아르침볼도가 활용한 기법이나 도상은 서양 미술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하지만 당대의 새로운 지식과 본인의 독창성이 결합되어 오늘날까지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 태어났다. 당시 궁정에는 귀족과 예술가, 과학자 등의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연했고, 기이하고 진기한 것에 대한 취향이 유행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수께끼와 지적인 게임이 인기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주의 모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식물의 조합으로 표현한 아르침볼도의 <루돌프 2세의 초상>은 크게 호평 받을 수 있었다.

황제 또한 이 그림을 보고 아주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과일과 야채, 곡식과 꽃으로 만들어진 그의 초상이 어떤 의미를 숨기고 있는지를 단박에 읽어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르침볼도는 황제를 고대 로마의 신 베르툼누스와 연결시켰고, 그의 얼굴을 이루는 풍성한 먹거리는 수확과 풍요의 신인 베르툼누스가 현현한 듯 황제가 세상에 가져온 평화와 번영, 조화를 암시한다. 농사자 주업인 백성들에게 베르툼누스는 친근하면서도 경외하는 대상이었다. 게다가 이 신은 마음먹은 대로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 루돌프 2세의 모습을 하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즉 덕망 있는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린 덕분에,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여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발레에 대한 로망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글 |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때 발레에 푹 빠진 적이 있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비롯한 여러 유명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의 갈라 공연을 접하면서 발레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겉으로 보이는 발레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그들의 상처 많은 발, 온몸에 아로새겨진 근육에서 읽혀지는 그들 삶의 치열함에 더욱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여기서 밝히긴 좀 부끄럽지만 발레 슈즈에 레오타드, 랩스커트 거기에 타이즈까지 구비하고 일주일에 두 번 문화센터로 발레를 배우러 다닌 적도 있었다. 정식 발레라기보다는 발레 동작을 이용한 스트레칭 운동이었는데 꽤 재미도 있었고 1년여 동안 참 열성으로 배운 것 같다. 유연성도 없고 근력도 부족한 탓에 발레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저 운동 삼아 경험하는 발레도 꽤 매력 있었다.

돌이켜보면 발레에 대한 로망을 키웠던 것은 공교롭게도 영화 때문이었다. 그 시작점이 됐던 것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감동 때문이었는데 특히 영화의 마지막 씬, 11살의 빌리가 25살의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되어 무대위를 힘차게 도약하는 장면은 숨이 멎을 정도로 멋있었다. 점점 고조되는 <백조의 호수> 피날레 클라이막스에서 한껏 숨죽이고 있다가 도약하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린다. 이 장면은 안무가 매튜 본 버전의 <백조

의 호수)로 실제 이 작품으로 큰 사랑을 받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아담 쿠퍼가 성인 빌리 역으로 출연했다. 엔딩 씬에 아주 짧게 나왔지만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백조의 호수> 버전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 발레 버전이 아니라서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던 거 같다. 물론 영화가 감동적인 것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고유 이미지, 선이 고운 순백의 발레리나가 아니라 강한 남성미에 파워를 가진 발레리노들의 <백조의 호수>라서 강한 인상을 받았던 거 같다. 사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지금까지도 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다. 고전 발레를 완성시킨 러시아의 발레 무용수 마리우스 프티파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남성 백조들만 나오는 매튜 본의 경우만을 예외로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생소함, 그 파격은 이해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발레가 멋지다는 생각을 갖게 한 또 다른 영화는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영화 <블랙 스완>이다. 흔히 발레 '백조의 호수'의 불거리를 얘기할 때 우아하고 청초한 백조 오데트 역과 요염하고 강한 흑조 오딜 역을 1인 2역으로 소화해내는 발레리나의 표현력을 많이 말하는데 이 영화 속 주인공 니나 역시도 이 문제로 고민을 한다. 아름답고 순수한 백조 오데트 역은 잘하지만 농염하고 어두운 본성의 흑조 오딜 역의 연기는 미흡하다는 지적, 그리고 이 문제로 자신의 역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급기야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유리조각으로 찌르는 악마성에 이르며 완벽하고도 자연스러운 흑조 역을 소화해내는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무대에 쓰러져 죽어가면서 뱉은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완벽했어' 이 영화를 보며 든 생각은 예술이란 과연 무엇이고 미쳐야만 완벽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영화 속 중요한 장치였을 뿐이었지만 이 영화는 발레의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영화의 강렬한 잔향으로 인해 차이코프스키의 고전 발레 <백조의 호수> 속에 드리워진 메시지가 뭘였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사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로 전 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지만 아쉽게도 나는 공연장에서 풀 버전의 발레로 이 작품을 만나본 적은 없다. 왕자와 오데트 공주가 함께 죽는 비극적 결말의 로열 발레단 버전과 사랑의 힘으로 오데트가 마법에서 풀려나 인간으로 돌아오는 볼쇼이 발레단 버전을 영상물로만 접해봤다. 그리고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감동으로 찾아본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도 아주 재밌고 흐뭇하게 봤던 기억이 있다. 얼마 전엔 이 매튜 본 버전의 <백조의 호수>가 3D버전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영상물이 아닌 실제 공연으로 보다 생생한 감동을 느껴보면 얼마나 좋을까.

벌써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장만하고 올해의 계획들, 챙겨야 할 것들을 메모하면서 올 한해의 나의 버킷리스트에 계획 하나를 더 추가해본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올해는 풀 버전의 발레 공연으로 공연장에서 꼭 만나보자.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글 | 윤하정

KBC 앵커, 조흥은행 아나운서, TBS 방송기자 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주)좋은콘서트·삼성전자 웹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 중이다.

저는 요즘 종종 도심에 있는 도서관에 갑니다. 고서적이 가득한, 열람 책상이 드문드문 놓인 그곳의 현대적이지 않은 모습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도서관과는 파장이 맞지 않은 저인지라 화려한 삽화가 가득한 책을 앞에 두고도 이내 줄음이 물려들곤 합니다. 며칠 전에는 자연스레 책상에 엎드렸지요. 흐뭇한 미소까지 머금은 채 단잠에 빠졌는데, 잠시 뒤 도서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서관은 자는 곳이 아니에요.” 코를 꿩거나 이를 간 것도 아닌데, 정말이지 조용히 잤는데요(이곳에서는 누군가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 아픈 것으로 생각한대요.). 조금 민망했던 저는 그길로 도서관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옆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이게 웬일인가요! 스크린으로 보았던 휴 잭맨과 러셀 크로우, 앤 해서웨이가 간이 무대에서 영화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런던에 있긴 하구나!” 네, 저는 2012년 12월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군요. 유럽의 크리스마스, 문득 그 다채로운 무대예술을 만끽해야겠다는 의지가 솟구쳤습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휴가

일 년에 한 달이 넘는 그들의 휴가가 우리에게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단 일주일만 허락되는 우리들의 휴가도 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도 4월 부활절과 12월 성탄절에 1~2주에 달하는 휴가가 있는데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대부분의 학교와 회사가 2주간 문을 닫습니다. 저도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 유럽의 문화를 좀 더 체험해보자 싶어 이 기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2월 말부터 방학이니, 한국에 있는 언니와 조카들에게 유럽의 문화를 함께 경험해보자며, 물론 날씨도 춥고 해도 짧아 여행하기에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겨울 유럽도 낭만이 있지 않느냐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말하고 글 쓰는 것이 좋아,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는 설득을 잘 합니다. 그렇게 저의 가족들은 제 말을 믿고 런던을 찾았고, 함께 파리까지 갔지요. 그런데 정말로 유럽의 겨울은 춥고 오후 4시면 짙은 어둠이 깔리는지라 여행하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대부분의 학교와 회사가 쉬는 크리스마스 연



휴에는 많은 공연장들도 문을 닫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전후가 공연계 대목이지만, 이곳에서는 절대 비수기였던 것이지요. 일반 상점들도 문을 닫는다면, 대중교통 운행도 뜸하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면 제가 받은 가족들의 따가운 눈총이 상상이 될까요?



유럽 크리스마스의 백미,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전에 유럽을 찾을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국교가 대부분 천주교인 유럽 대다수 국가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규모 크리스마스 마켓과 성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700여 년 전 독일에서 시작됐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광장이나 대성당 앞에서 크리스마스 용품과 먹을거리를 팔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후 볼거리 많고 활기 넘치는 이 장터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죠. 크리스마스 마켓은 주로 11월 말에 시작해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문을 엽니다. 곳에 따라 1월 초까지 진행되는 곳도 있는데요. 주로 갖가지 크리스마스 용품과 전통 공예품, 장난감, 각종 먹을거리들이 판매됩니다.

독일의 경우 뉘른베르크와 뮌헨, 로텐부르크 등이 특히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한데요. 뉘른베르크의 경우 독일 관광청이 ‘제1호 크리스마스 도시’ 라는 타이틀을 부여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뉘른베르크 구시가를 가득 메운 180여 곳의 간이상점에서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독특한 수공예품, 색다른 먹을거리 등을 만나볼 수 있고, 성당과 광장에서 다양한 합창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엔나를 중심으로 많은 도시에서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엔나의 경우 시청사 건물 자체가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 달력으로 변신합니다. 수천 개의 전구가 불을 밝히는 장터, 곳



곳에서 들려오는 캐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따로 없네요. 프랑스는 파리와 함께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합니다. 아기자기한 동화마을로 유명한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 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크리스마스 트리는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는 따뜻하게 데운 와인과 오렌지 주스, 사과주스도 맛볼 수 있습니다. 데운 주스의 맛, 궁금하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한 달 동안 유럽 전역은 크리스마스 열기로 가득합니다. 마켓 주변은 물론 주요 광장과 공연장,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각종 공연예술이 펼쳐지니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돌아다니자고요! 또 중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럽 전역의 주요 광장과 공원 등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마련되는 곳도 많습니다. 한 장의 엽서 같은 풍경을 안은 채 은빛 얼음을 가르는 모습도 놓치기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많은 상점에서 대대적인 세일이 진행된다는 점도 여행객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알찬 정보겠죠.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도심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불빛, 밤늦도록 사람들을 맞는 상점, 특히 대목 맞은 대형 공연장... 이것은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들인 온갖 먹을거리와 물품을 꺼안고 연휴 내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길거리는 정말 한산합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나 제야음악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런던의 로열 알버트홀과 파리의 오페라극장도 한 해를 접고 새해를 맞이하는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다수 미술관과 박물관, 뮤지컬 공연장들은 12월 25일과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네요. 또 주요 성당을 중심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질 때가 많으니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런던의 경우 런던아이와 타워브릿지, 파리는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을 중심으로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펼쳐지는데요, 이 또한 놓칠 수 없는 볼거리죠.

현란한 불빛과 커다란 트리,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캐럴... 이렇듯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유럽은 정말 화려하고 아기자기 하지만, 성탄절 당일엔 가족과 함께 한다는 점, 그래서 거리는 한산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특히 공연예술을 보기 위해 유럽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크리스마스과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시점은 피하세요, 그들은 휴가 중이라고요!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세이바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 17(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세이바청소년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세이바청소년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로 학생들이 꾸준히 갈고 닦은 기량을 평가받고 대중적으로 친숙한 클래식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즐거움 선사

■ 프로그램

- 위풍당당 행진곡
- 하얀가발
-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스페인 아가씨
- 영원한 사랑
-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등

어린이뮤지컬 “틀러도 괜찮아”

일 시 | 1. 19(토) 18:30
1. 20(일) 11:00 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30,000원
주 최 | 극단 예일

■ 공연개요

“틀러도 괜찮아”의 책을 뮤지컬로 제작하여 아이 스스로 터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뮤지컬 공연

■ 프로그램

“틀러도 괜찮아” 교실에 수줍음이 많은 “한심이”는 공부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처럼 선생님 질문에 손을 들고 발표를 하지 못해 고민합니다. 그 두려움에 공부에 실증을 느끼고 급기야 수업시간에 도망가게 되는데...

2013 겨울음악페스티벌

일 시 | 1. 20(일)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피아노지도자 협회

■ 프로그램

- 봄의 소리 왈츠
- Merry Christmas, Mr. Lawrence
- Rain (영화 '마지막황제')
- Symphony No.9 minor op.95
- 또다시(영화 '센과 치이로의 행방불명')
- 인생의 회전목마(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 White Christmas
- Once upon a dream(뮤지컬 '키링앤하이드')

어린이 뮤지컬 “책먹는 여우”

일 시 | 1. 26(토) 11:00 14:00 16:00
1. 27(일) 11:00 14: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5,000원
주 최 | 가람뮤지컬

■ 공연개요

어린이 베스트셀러 “책 먹는 여우”를 신나는 노래와 춤이 가미된 뮤지컬로 제작하여 컴퓨터와 TV에 빠진 어린이들의 문화를 책과 공연의 문화로 이끌기 위한 작품

■ 프로그램

책을 너무나 좋아해 읽고 먹어 치우는 여우. 집에 있는 책을 다 먹은 뒤 나쁜 꼬임에 빠져 도서관 책을 훔치려다 감옥에 갇힌다. 하지만 그 동안 먹은 책을 바탕으로 멋진 책을 써 큰 성공을 한다.

제3회 극단 흥강 정기공연 연극 “블랙코미디”

일 시 | 2. 15(금) 19:00
2. 16(토) 16:00 19:00
2. 17(일) 16:00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흥강예술원

■ 공연개요

인간의 마음과 물질문명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희극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코미디”를 선택하여 웃음이라는 편안한 소통 구조 안에서 불편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극공연

■ 프로그램

브린즈리(젊은 조각가)는 약혼녀의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한다. 브린즈리는 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 이웃 해롤드의 가구를 훔친다. 하지만 브린즈리의 집이 정전이 되고 정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사랑했던 옛 애인이 브린즈리를 찾아온다. 자신의 인생에 등불을 밝혀줄 백만장자를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든 정전을 해결하려고 한다.

제35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2. 19(화) 20: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솔리데오 글로리아 합창단

■ 공연개요

합창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서를 높이고 시와 무반주곡의 아름다움을 수화찬양과 즐거운 음악으로 표현

■ 프로그램

- 합창 I : 시편 8편 등 5곡
- 합창 II : Amor de mi alma 등 3곡
- 합창 III : 이 작은 나의 빛 등 5곡
- 독창, 관악 등

제1회 모이즈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2. 22(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모이즈 플루트 앙상블

■ 공연개요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플루트연주자, 지도자들과 지역의 플루트 꿈나무들로 구성된 20인의 울산모이즈 앙상블의 첫 번째 연주회

■ 프로그램

- 주니어부 독주
- 특별 출연자 색소폰 협연
- 시니어부 앙상블
- 플루트 4중주
- 모이즈 플루트 앙상블

박태영 지휘자와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

일 시 | 2. 23(토) 17: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삼성정밀화학

■ 공연개요

박태영 지휘자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과 악기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봄을 맞이하는 문화적 나눔행사로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

■ 프로그램

- 서곡 : 봄의 소리 왈츠(요한 슈트라우스 2세)
- 협주곡 : 비올라 협주곡(프란츠 안톤 호프마이스터)
- 교향곡 :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안톤 드보르작)

제11회 울산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2. 23(토)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챔버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울산 지역의 음악학원장 및 전문연주자로 구성, 클래식 음악을 통해 울산 문화창달에 기여

■ 프로그램

- Overture to “Egmont” Op.84
- 뱃노래
-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Arts Friend

공연·전시가이드

※ 전시일정은 주치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위드아트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을 찾아서”

일 시 | 2. 24(일)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원
주 최 | 문화예술기획 위드아트

■ 공연개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함께 pop과 영화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연주

■ 프로그램

- pop과 영화음악 : Moon Piver, 또다시, 언제나 몇 번이라도 사랑의 찬가, Hyum 외 7곡
- Guest 와 함께하는 가곡과 뮤지컬 6곡

피아노 4중주 연주회

일 시 | 2. 26(화) 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유리아

■ 공연개요

울산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피아노 4중주 연주팀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실내악 연주를 통하여 지역에 문화예술 기회 확대에 기여

■ 프로그램

- Mozart Diaro Quartet in g miror K,478
- J. Brahms Piano Quartet Op.25 No.1

EXHIBITION

제6회 청사연목회 회원전

기간 | 1. 19(토)~1. 24(목), 6일간
장소 | 제2,3,4전시장
주최 | 청사연목회

■ 전시내용

울산미술협회 회원인 문인화가 청사 남중모 문화생들의 작품 전시로 사군자, 화조, 인물, 풍경과 십군자 등 다양한 서예작품 150여점 전시

제9회 아담사진동호회 회원전

기간 | 1. 26(토)~1. 30(수), 5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아담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사람들” 이란 뜻을 지닌 아담사진동호회의 아홉 번째 전시회로 2012년 한 해의 결산을 겸해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사진작품 30여점 전시

우향 김두선 도예전

기간 | 1. 26(토)~2. 7(목), 13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김두선

■ 전시내용

분청사기로 한국도자기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린 도예가 우향 김두선의 생활자기 등 도예작품 50여점 전시

연예리 서양화 작품전

기간 | 1. 26(토)~1. 31(목),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배정희

■ 전시내용

현대적인 감각을 캔버스 위에 표현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미술작품 30여점 전시

뉴비전아트센터 기획전

기간 | 2. 1(금)~2. 7(목), 7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뉴비전아트센터

■ 전시내용

우리나라와는 아직 미수교국가인 낯선 공산국가인 쿠바를 2012년 2월에 4명의 사진가가 18일간 여행하며 촬영한 아름답고 신비한 쿠바의 풍경과 멋진 쿠바인들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사진작품 50여점 전시

제23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기간 | 2. 2(토)~2. 7(목),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현대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현대사진동호회의 제23회 정기회원전으로, 풍경, 접사, 생활상, 생태사진 등 다양한 소재의 창작품이며 18명 회원들이 직장생활의 긴장 속에서 잠시 벗어나 렌즈를 통한 문화적 활동의 결과물인 사진작품 60여점 전시

제1회 대한민국 암각화 서예문인화대전

기간 | 2. 14(목)~2. 19(화), 6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한국가훈씨주기운동본부

■ 전시내용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면서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반구대 암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서예 문인화대전으로,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 등 전국 단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품 300여점 전시

TAZAN 전

기간 | 2. 21(목)~2. 26(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TAZAN

■ 전시내용

다소 난해할 수 있는 현대미술에 지친 관객들에게 편안한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물, 풍경 등 사실주의 기법의 전통적인 구상계열 유화작품을 위주로 약간의 초현실주의 작품을 가미한 5명 작가의 개성적인 미술작품 30여점 전시

제1회 춘강서예연구회 회원전

기간 | 2. 21(목)~2. 26(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춘강서예연구회

■ 전시내용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춘강 권두호의 문하생들로 구성된 춘강서예연구회의 첫 번째 회원전시로, 한글과 한문 등 다양한 서체의 서예작품 50여점 전시

제6회 대유연서회 회원전

기간 | 2. 28(목)~3. 5(화), 6일간
장소 | 제1,2,3전시장
주최 | 대유연서회

■ 전시내용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서호 이권일의 문하생으로 구성된 대유연서회의 창립 30주년 기념 전시로, 서예, 문인화, 전각, 도예 등 다양한 서예작품 200여점 전시

제1회 서미희 개인전

기간 | 2. 28(목)~3. 5(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서미희

■ 전시내용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각 종 공모전의 입상에 힘을 얻어 마련한 첫 번째 개인전으로 전통 문인화, 화조화, 사군자, 전각 등 다양한 서예작품 45점 전시

당신의 **블링블링**한 ART 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문의회원에게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구 분	가입기준	연 회비	수혜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2인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10,000원	1인
가족회원	한 가족	40,000원	4인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인 이상)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가입인원

※ 청소년회원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상 나이 확인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여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회원가입할 때 납부

- 인터넷 가입 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 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